

## 생물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조선 시대 검안시장의 학술적 가치와 가능성

신동훈<sup>1</sup>, 홍성욱<sup>2</sup>, 김창영<sup>3</sup>, 기호철<sup>4</sup>, 홍승직<sup>5</sup>, 이승덕<sup>1</sup>, 홍종하<sup>6</sup>, 김지은<sup>4</sup>

<sup>1</sup>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법의학연구소, <sup>2</sup>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sup>3</sup>고려대학교, <sup>4</sup>독립연구자,  
<sup>5</sup>순천향대학교 중국학과, <sup>6</sup>경희대학교 한국 고대사·고고학연구소

## The Academic Value and Possibility of the Postmortem Investigation of Joseon Kingdom from the Perspective of Biological Anthropology

Dong Hoon Shin<sup>1</sup>, Seonguk Hong<sup>2</sup>, Chang Young Kim<sup>3</sup>, Ho Chul Ki<sup>4</sup>, Seung Jic Hong<sup>5</sup>,  
Soong Deok Lee<sup>1</sup>, Jong Ha Hong<sup>6</sup>, Jieun Kim<sup>4</sup>

<sup>1</sup>*Institute of Forensic and Anthrop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2</sup>*Soon Chun Hyang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sup>3</sup>*Kore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sup>4</sup>*Independent Researcher*

<sup>5</sup>*Department of Sinology, Soon Chun Hyang University*

<sup>6</sup>*Institute of Korean Archaeology and Ancient History,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 The post-mortem examinations in the Joseon Kingdom continued the forensic traditions that had developed in pre-modern East Asian societies. The Shijang, a record of these examinations, has attracted academic attention for its objective and detailed accounts of the deaths of Joseon Koreans. In this review, we examine the content of these post-mortem examination records currently preserved in South Korea, and suggest how research of them can be enriched through the lens of biological anthropology. We argue that a successful analysis of these records requires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between the humanities and forensic anthropology to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deaths of Joseon people - insights that are rarely found in other historical sources.

**Keywords** : Post-mortem examination record, Shijang, Joseon period, Biological anthropology, Forensic anthropology, Forensic medicine

## 서론

This work was suppor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융복합 연구과제 지원사업: 800-20220548)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교육연구장려비: 2024).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October 15, 2024; **Revised:** November 26, 2024;

**Accepted:** December 4, 2024

**Correspondence to:** 신동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E-mail:** cuteminjae@gmail.com

조선 시대 검시(檢屍)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발전한 전통 법의학을 이어받아 대한제국 시대까지 시행되던 사법적 조사 기법이며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일체를 포괄적으로 검험(檢驗)이라 불렀다[1-5]. 당시 변사(變死)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군수가 검험관(檢驗官)으로 착임하여 검시와 관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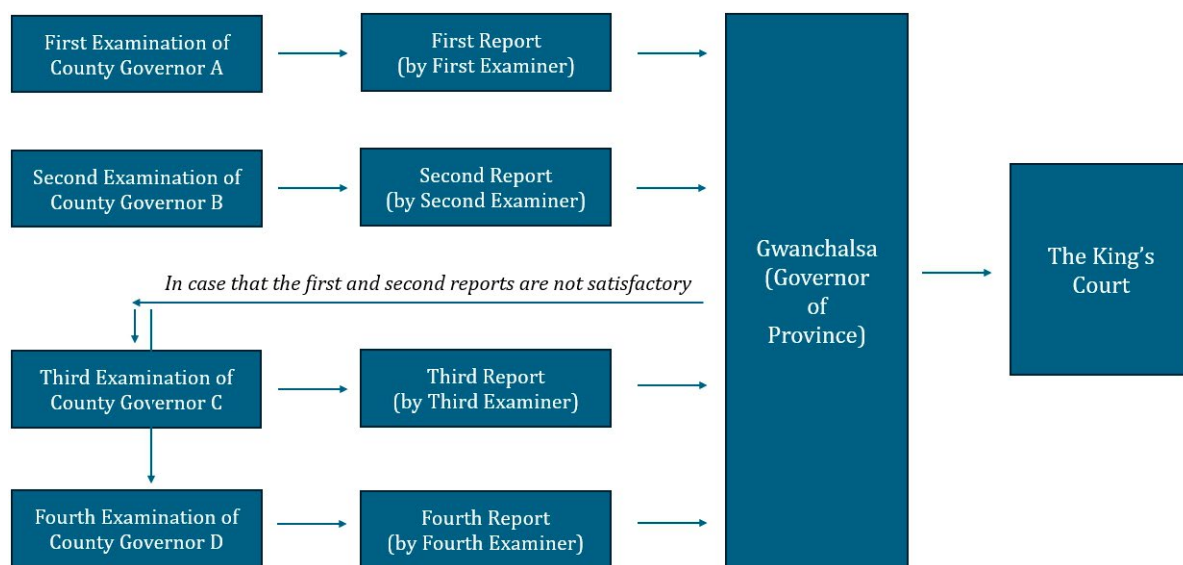


Fig. 1. The diagram of post-mortem examinations of Joseon Dynasty.

취조를 주재하였고 초검(初檢)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군수가 이차 검시관인 복검관(覆檢官)을 맡아 조사를 반복한 다음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때 초검관과 복검관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6], 판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나 유족의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삼검(三檢), 사검(四檢)까지 검시를 반복 진행하였으며 때로는 상부의 요구에 의해 조사에 참여한 모든 검험관이 한 곳에 모여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Fig. 1).

이러한 절차는 당시 사망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나 피의자(被疑者)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사법적 신중함을 반영한 것으로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당시 변사사건의 조사와 판결 내용을 담당관이 기술하여 상부에 올린 보고서가 아직 다수 남아 있다. 이를 검안 서류라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사건의 개요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취조 내용과 함께 사망한 이의 시신에 대한 검시기록인 시장(屍帳)도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시장기록은 사망자에 대한 검시에서 확인된 물적 증거가 매우 객관적이고 자세한 형태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적 법의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부분이 많아 일찍부터 우리나라 법의학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규장각 시장에 대한 연구는 검시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사건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주력하여 대부분의 보고가 사망사건이 일어난 갈등의 규명과 이를 역사적 흐름에서 해석하여 논의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7-11]. 물론 이러한 작업은 한국사 연구가 거시적 시대사에서 미시적 사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

식으로 우리 전통사회를 분석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선 시대 검시 시장 서류가 가지고 있는 학술적 가능성을 생각할 때 생물인류학 및 법의학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시장에 기록된 내용은 사망자의 시신을 검시한 자료로서 검안 보고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한 분석 등 매우 예외적 보고를 제외하면[12], 지금까지 법의학적으로 이 자료를 깊이 탐구한 논문이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 시대 시장기록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이 지금까지 미진하였던 이유는 일차적으로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난해함 때문이다. 검안 기록은 한문에 이두가 섞인 문장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전공자들로서는 접근이 쉽지 않고 반면 원문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자의 경우 법의학적 지식이 충분치 않아 시장의 내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조선 시대 검안 자료 안에 기록된 내용들 중 시장기록만은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 종설에서는 조선 시대 시장기록에 대한 연구를 생물인류학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생물인류학은 고인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조상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 많이 보고하였다. 하지만 조선 시대 사람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는 생물인류학적 연구만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경우 문헌에 남아 있는 자료에 대한 분석은 당시 사람들의 건강상태, 질병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을 풍부하게 하여 인골 자료에 대한 분석 결

과의 해석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술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13].

특히 조선 시대 시장기록에는 다른 문헌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 간의 다툼에 의한 상해, 독물 치사, 익사, 자살 등 다양한 사망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매우 객관적인 관찰로 검시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분석하면 앞으로 생물인류학자의 연구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 시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먼저 소개하고 검시 사실의 기술과 해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시장의 문헌적 효용 가치 등을 생물인류학적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해당 문헌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이 분야 연구에 새로운 기여를 하는 데 있어 기초적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게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무원록(無冤錄)과 조선 시대 검안 자료

조선 시대 검안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이루는 무원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에서 합리주의에 기반한 사대부 사회의 발전은 송대에 이르러 변사자 조사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었는데 경험과 합리성에 입각하여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검시과정을 법제화하며 이를 통해 억울한 판결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였다. 이처럼 중국 송대에 확립된 전통 검시의 전통은 원나라 때가 되면 무원록이라는 책의 출판으로 종합되어 당시의 중국 사회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에도 범죄심리의 실무서로서 적극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무원록의 성립과 전개에 대해서는 인문학적 검토가 이미 자세히 이루어진 바 있다[2,4,5].

여말선초 시기에 도입된 무원록은 조선 초기 사법체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그 안에는 원나라 때 관리들이 쓰던 용어가 아직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세종 시기에(1438년) 이를 주석하여 해석한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이 간행되었다. 신주무원록은 원전의 주석과 음훈을 보완하여 그때까지 모호하게 남아 있던 구절에 대한 이해를 높였기 때문에 조선 중기까지 중요하게 이용되었으며 임란을 전후하여 일본에도 전파되어에도 막부 시대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데 기본자료로 널리 활용되었다[2].

조선 후기 영조(英祖) 시기에는 신주무원록이 당시 조선 사회의 사례에 맞지 않는 면을 수정하여 새로이 내용을 보강한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을 재차 간행하였는데(1748년) 이는 우리나라 전통 검안지침서가 도달한 전통의 결정판

에 해당한다[4,5]. 이후 1790년에는 증수무원록에 한글 토를 단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冤錄大全)이 간행되었으며 여기에 한글번역을 추가한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도 출판되어 이후 대한제국 시대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의 조사 지침서로 활용되었다[5].

무원록에 기반한 사망사건 조사의 전통 아래에서 조선 시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검시 관련 서류를 검안(檢案)이라 부른다. 조선에서 치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의 수령들은 시신에 대해 검시한 후 소견서인 시장(屍帳)을 작성하여 이를 관련자들을 심문한 조서와 함께 묶은 문안으로 상부에 보고하게 되는데 검안이란 그 관련 서류 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검안에는 사건의 경위와 시신에 대한 검시 내역, 심문 내용에서 검험관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망사건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종합보고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간행한 규장각 한국본 종합목록(奎章閣韓國本綜合目錄)에 의하면 규장각(奎章閣) 서고에는 현재 다수의 검안류(檢案類)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이는 조선 시대 후기부터 대한제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각종 살인 및 변사사건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것으로 그 대부분이 비교적 늦은 시기인 대한제국 시기를 중심으로 한 시대에 속한다. 무원록에 입각한 검시 작업은 조선 건국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장각에 보관 중인 기록물은 그중 극히 일부분만 남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조선 시대의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학술적으로 들여다보는 데에는 손색이 없다.

## 조선 시대 검안 자료의 구조의 예

규장각에 보관된 조선 시대 검안 자료는 현재 기초적인 서지 자료와 함께 본문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으며 연구 이용에 제약이 없다. 조선 시대 검안 자료는 대체로 무원록에 정의된 방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정형화되어 대부분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 종설에서는 조선 시대 검안 자료의 구조 이해를 위해 1897년 전라도 광양군 봉강면 강변촌에서 발생한 동학교도 이학조(李學祚) 치사사건에 대한 검안 자료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 사망사건의 사회적 배경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김호[7]의 연구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지만 이 종설에서는 그중 시장 부분의 내용을 보다 심층 검토함으로써 조선 시대 당시 검시 보고서의 일반적 형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건 개요의 이해와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김호[7]의 원 보고를 많이 참고하였으며 이 사건 시장 원

페이지	내용의 요약	비고
000	결표지	
001	속표지	정범(正犯)의 이름, 사망원인 기록
002	사건의 개요 고발인 이영동 심문	
003	시신이 놓인 장소에 대한 조사	
003~005	시신 앞면에 대한 검시	시장(屍帳): 양면(仰面)
005~006	시신 뒷면에 대한 검시	시장(屍帳): 합면(合面)
006~024	관련자에 대한 심문	심문은 여러 번 반복 시행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대질 심문도 있음
024~027	발사(跋辭)	초검관의 결론 사망원인(實因) 기술
028	범인 조운태가 사용한 흉기 그림	소나무 몽둥이, 죽창 그림

Fig. 2. Structure of postmortem investigation record (Hakjo Lee Case) of Joseon Dynasty.

문에 대한 추가적 분석과 정리, 이에 대한 법의학적 해석에는 본 종설의 작성에 참여한 인문학 및 법의학, 생물인류학 관련 연구자들의 공동 검토가 있었다.

먼저 김호[7]의 보고에 의하면 이학조라는 이름의 52세 남성이 1897년 전라도 광양군 강변촌에서 구타당해 사망하였다. 이학조는 1895년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당시 광양의 좌수 조용하의 집을 불태우고 핍박하여 조용하는 이를 피해 달아났다가 객사하였다. 조용하의 아들 조운태는 아버지를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학조가 들이닥쳐 조용하의 시신에 충을 쓰고 모욕하였다. 동학혁명이 끝난 후 조운태는 이를 복수하고자 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씨름판에 구경하러 온 이학조가 붙들려 오게 되었다. 조운태는 몽둥이로 이학조의 온몸을 구타하였고 동네 앞 나무 아래에 버려둔 것을 이학조의 부인과 아들이 간신히 돌려메고 도피하였다(8월 17일). 하지만 친척 이달춘의 집으로 옮겨 놓은 이학조를 조운태가 이 집으로 다시 쳐들어와 죽창과 죽장(竹杖)으로 또 구타하였고 이학조는 사경을 헤매다 8월 21일 결국 사망하였다. 이학조의 아들 이동영(25세)과 친척 이달춘은 조운태를 살인죄로 관가에 고발하였다[7].

이학조 치사사건의 검시는 김호의 연구[7]에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그중 첫 번째 조사는 사건이 발생한 관내의 광양군수가 담당하였고 이학조가 사망한 지 이틀 만인 8월 23일에 실시되었다. 해당 검시 기록은 규장각의 光陽郡鳳岡面江邊村致死男人李學祚屍體初檢案에 기록되어 있다. 다음 두 번째 검시는 인접 순천군수가 담당하였는데 규장각의 光陽郡鳳岡面江邊村致死男人李學祚屍體覆檢案이 그 기록이다.

이 중 초검안의 구조를 정리해 보면 Fig. 2와 같다. 초검안 결표지의 안쪽에는 속표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범의 이름,

초검관이 추정한 사망원인(실인)이 적혀 있다. 검시의 결과 초검관은 이 사건의 사망원인을 조운태에 의해 맞아 죽은 것으로(被打致死) 결론지었다고 속표지에 적고 있다. 해당 검험 기록에는 3~6장 사이에 시신에 대한 검시기록이 있으며 6~24장 사이에는 사건 관련자에 대한 심문 기록, 24~27장 사이에 초검관의 결론, 28장에는 범인 조운태가 사용한 흉기 그림이 그려져 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조선 시대 검안 자료의 대부분은 이학조 사망사건 초검안과 구조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먼저 해당 사건의 발생 과정과 사망에 이르는 단계까지의 경과는 사건 개요와 관련자에 대한 심문 부분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어 이 부분을 숙독하면 사건 전체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보고서의 가장 뒤에 붙는 발사(跋辭)는 결론에 해당한다. 검험관이 사망사건의 책임이 있는 주범인 정범(正犯)을 확정하고 여러 원인 중 가장 우선적 사망원인이라 할 실인(實因)을 여기서 결정하게 되므로 발사는 범인을 특정하고 형량을 확정하는 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시장의 구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까지 조선 시대 검험에 대한 많은 연구는 대부분 사망사건의 개요와 관련자 심문, 검험관의 발사에 기록된 사건의 사회경제적 배경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검안 자료 중 생물인류학 연구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긴 부분은 역시 시신 앞면과 뒷면에 대한 검시기록이 담긴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생물인류학자가 검안 자료를 연구하는 경우 시장에 대한 법의학적 검토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시신에 대한 검시는 검험관이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면(양면)에서 뒷면(합면)의 순으로 진행하며 각각 머리에서 발끝 방향으로 내려오며 검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원록에 상세히 적혀 있는 대로 시행한다. 이때 검시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주관적 해석은 가능한 한 배제되

며 사실에 입각한 관찰기록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검시기록인 시장에서 오직 관찰자의 눈에 보이는 것을 위주로 당시의 보고서에 기록했다는 점은 후대에 기록에 의존하여 조선 시대의 사망사건을 해석해야 하는 법의인류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건의 진실에 근접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점이다. Fig. 3은 상기한 이학조 사망사

시장에 기술된 부위	현대 해부학적 위치	검험 결과
정심(頂心)	머리마루점(Vertex)	황백색으로 부드럽다(黃白色 柔軟)
편좌편우(偏左偏右)	마루부위(Parietal region)	황백색으로 부드럽다(黃白色 柔軟)
신문(顙門)	정수리점(Bregma)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두로(頭顙)	이마뼈(Medial part of frontal bone)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액각(額角)	이마뼈(Lateral part of frontal bone)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양태양혈(兩太陽穴)	관자놀이점(Pterion)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양미(兩眉)	눈썹(Eyebrow)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미총(眉叢)	눈썹활사이(Glabella)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양안포(兩眼胞)	눈꺼풀(Eyelid)	온전하며 청황색으로 부드럽다(全 靑黃色 柔軟)
양안쌍정(兩眼雙睛)	눈동자(Pupil)	왼쪽 눈은 조금 열려 있고(왼쪽 가장자리에) 피고름이 난다. 오른쪽 눈은 온전하며 약간 열려 있다 (左眼微開 左邊血濃 右眼 全 微開)
양시협[兩頰]	광대부위(Zygomatic region)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양이(兩耳)	귀(Ear)	온전하며 청황색으로 부드럽다(全 靑黃色 柔軟)
이륜(耳輪)	귓바퀴(Auricle)	온전하며 청황색으로 부드럽다(全 靑黃色 柔軟)
이수(耳垂)	귓볼(Lobule of auricle)	온전하며 청황색으로 부드럽다(全 靑黃色 柔軟)
이규(耳竅)	귓구멍(External acoustic pore)	온전하며 청황색으로 부드럽다(全 靑黃色 柔軟)
비량(鼻梁)	코등(Nasal bridge)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비준(鼻准)	코끝(Nasal tip)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비구(鼻竅)	코구멍(Naris)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유연하다(全 黃白色 柔軟)
인중(人中)	인중(Philtrum)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유연하다(全 黃白色 柔軟)
상하순문(上下脣吻)	위, 아래 입술(Lips)	온전하며 약간 열려 있고 피땀이 흘러나왔다(全 微開 血汗流出)
상하아치(上下牙齒)	치아(Teeth)	온전하며 닫혀 있다(全 關)
설(舌)	혀(Tongue)	온전하다(全)
합해(頰頰)	턱밑(Submandibular)	온전하며 청흑색이며 부드럽고 변동이 있다(全 靑黑色 柔軟 變動)
인후(咽喉)	인후두(Pharyngolarynx)	온전하다(全)
식기상(食氣頰)	인후두(Pharyngolarynx)	온전하다(全)
양혈분골(兩血盆骨)	빗장뼈(Clavicle)	온전하다. 왼쪽 빗장뼈는 황백색으로 유연하다. 오른쪽 빗장뼈는 청흑색으로 유연하고 변동이 있다 (全 左血盆骨 黃白色 柔軟 右血盆骨 靑黑色 柔軟 變動)
양견갑(兩肩胛)	어깨뼈(Scapula)	온전하다. 왼쪽 어깨뼈는 황백색으로 유연하다. 오른쪽 어깨뼈는 청흑색으로 유연하며 변동이 있다 (全 左肩胛 黃白色 柔軟 右肩胛 靑黑色 柔軟 變動)
양액지(兩腋肌)	겨드랑이(Axilla)	온전하다. 왼쪽 겨드랑이는 황백색이며 유연하다. 오른쪽 겨드랑이는 청흑색이며 유연하고 변동이 있다 (全 左腋肌 黃白色 柔軟 右腋肌 靑黑色 柔軟 變動)
양흉박(兩脅膊)	위팔(Upper arm)	온전하며 황백색이고 유연하다(全 黃白色 柔軟)
양곡추(兩臑臑)	팔꿈치(Elbow)	온전하며 청황색이고 유연하다(全 靑黃色 柔軟)
양수완(兩手腕)	손목(Wrist)	온전하며 황백색이고 유연하다(全 黃白色 柔軟)
양수심(兩手心)	손바닥(Palm)	온전하고 황백색이며 유연하다(全 黃白色 柔軟)

Fig. 3. The results of the first examination of Hakjo Lee case.

시장에 기술된 부위	현대 해부학적 위치	검험 결과
수지(手指)	손가락(Finger)	온전하고 황백색이며 유연하다. 손가락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全 黃白色 柔軟 散開)
수지두(手指肚)	손가락끝(Fingertip)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수지갑봉(手指胛縫)	아래손톱허물(Hyponychium)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흉당(胸膛)	가슴(Chest)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양유(兩乳)	젖(Breast)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심감(心坎)	명치부위(Epigastric region)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두복(肚腹)	명치부위(Epigastrium)	온전하며 청황색으로 부드럽고 변동이 있다(全 靑黃色 柔軟 變動)
양늑(兩肋)	갈비뼈(Rib)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양협(兩脇)	옆구리(Flank)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제두(臍肚)	배꼽부위(Umbilical region)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양과(兩胯)	살굴부위(Inguinal region)	온전하며 청흑색으로 부드럽고 변동이 있다(全 靑黑色 柔軟 變動)
경물신낭(莖物腎囊)	남성 생식기(Male genitalia)	온전하며 청황색으로 부드럽고 변동이 있다(全 靑黃色 柔軟 變動)
양퇴(兩腿)	넓적다리(Thigh)	온전하며 청흑색으로 부드럽고 변동이 있다(全 靑黑色 柔軟 變動)
양슬(兩膝)	무릎(Knee)	온전하며 청흑색으로 부드럽고 변동이 있다(全 靑黑色 柔軟 變動)
양겸인(兩膝肋)	종아리(Leg)	왼쪽 종아리에 몽둥이로 맞은 흔적이 있으며 위아래가 자암색으로 (만져보면) 딱딱하다. 둘째의 길이는 유척으로 일척칠촌이요 가운데에 창에 찢린 흔적이 한곳 있는데 그 (비스듬한) 길이는 팔푼이요 넓이는 이푼, 깊이는 사푼이며 뼈에 이르기까지 피땀이 흘러나온다. 오른쪽 종아리에도 몽둥이로 맞은 흔적이 있는데 자암색으로 (만져보면) 딱딱하다. 둘째는 유척으로 일척오촌육푼이요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창에 찢린 흔적이 한곳 있는데 비스듬한 길이는 세푼이요 넓이는 이푼, 깊이는 삼푼이다 (左膝肋 有棒打痕 上下紫黯堅硬 圓圍長鎗尺一尺七寸當中有槍戳痕一庫斜長八分廣二分深四分 至骨血汁流出 右膝肋 有棒打痕 一般紫黯堅硬 圓圍長鎗尺一尺五寸一分 當中右邊 有槍戳痕一庫 斜長三分 廣二分 深三分)
양각완(兩腳腕)	발목(Ankle)	온전하며 청흑색으로 부드럽고 변동이 있다(全 靑黑色 柔軟 變動)
양각면(兩腳面)	발등(Dorsum of foot)	온전하며 청황색으로 부드럽고 변동이 있다(全 靑黃色 柔軟 變動)
족지(足趾)	발가락(Toe)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족지갑(足趾甲)	발톱(Toenail)	온전하며 황백색이다(全 黃白色)
뇌후(腦後)	뒤통수(Occiput)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발제(髮際)	두발선(Hairline)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이근(耳根)	조가비용기(Eminence of conchae)	온전하며 청황색으로 부드럽고 변동이 있다(全 靑黃色 柔軟 變動)
항경(項頸)	목뒤(Posterior cervical region)	온전하며 청황색으로 부드럽고 변동이 있다(全 靑黃色 柔軟 變動)
양비박(兩臂膊)	어깨뒤(Posterior shoulder region)	온전하며 청흑색으로 부드럽고 변동이 있다(全 靑黑色 柔軟 變動)
양홀주(兩肘肘)	팔꿈치(Cubitus)	온전하며 청흑색으로 부드럽고 변동이 있다(全 靑黑色 柔軟 變動)
수완(手腕)	손목(Wrist)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양수배(兩手背)	손등(Dorsum of hand)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
십지(十指)	손가락(Fingers)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고 손가락이 사방으로 펼쳐졌다(全 黃白色 柔軟 散開)
십지갑(十指甲)	손톱(Nail)	온전하며 황백색이다(全 黃白色)
척배(脊背)	척추뼈(Vertebra)	왼쪽은 온전하며 청황색으로 부드럽고 움직여진다. 오른쪽은 청흑색으로 부드럽고 벗겨진 흔적이 한곳 있는데 둘째 길이가 유척으로 삼촌 팔푼이다. 약간 부어 있다 (左 全 靑黃色 柔軟 變動 右 靑黑色 柔軟 有礮擦痕一庫 圓圍長鎗尺三寸九分 微浮)
척려(脊膂)	척추옆근육(Paraspinal muscle)	왼쪽은 온전하며 청황색이고 부드럽다. 오른쪽에는 상처가 한곳 있는데 둘째의 길이가 오촌 일푼이요 색은 자암색으로 약간 딱딱하다 (左 全 靑黃色 柔軟 右 有傷痕一庫 圓圍長五寸一分 色紫黯 微硬)

Fig. 3. Continued.

시장에 기술된 부위	현대 해부학적 위치	검험 결과
양후륵(兩後肋)	늑골뒤(Rib, posterior part)	온전하며 청황색으로 부드럽고 간간히 피부가 벗겨져 있다(全 靑黃色 柔軟 間間皮脫)
양후협(兩後脇)	옆구리 뒤(Lumbar region, posterior part)	온전하며 청황색으로 부드럽고 간간히 피부가 벗겨져 있다(全 靑黃色 柔軟 間間皮脫)
요안(腰眼)	허리(Waist)	왼쪽은 온전하며 청황색으로 부드럽고 오른쪽은 상처가 두 군데 있는데 둘레는 구촌오푼이고 색은 자암색으로 만져보면 딱딱하다(左 全 靑黃色 柔軟 右 有傷痕二處 圓圍長九寸五分 色 紫黯 堅硬)
양둔(兩臀)	볼기(Buttocks)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고 간간히 피부가 벗겨져 있다(全 黃白色 柔軟 間間皮脫)
곡도(穀道)	항문(Anus)	온전하다(全)
양퇴(兩腿)	넓적다리(Thigh)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유연하다(全 黃白色 柔軟)
양곡추(兩臑臑)	다리오금(Popliteal fossa)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유연하다(全 黃白色 柔軟)
양퇴두(兩腿肚)	종아리(Leg)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유연하다(全 黃白色 柔軟)
양각과(兩脚蹠)	복사뼈(Medial and lateral malleoli)	온전하며 청황색으로 유연하며 변동이 있다(全 靑黃色 柔軟 變動)
양각근(兩脚跟)	발뒤꿈치(Heel)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유연하다(全 黃白色 柔軟)
양각심(兩脚心)	발바닥(Plantar)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유연하다(全 黃白色 柔軟)
십지(十趾)	발가락(Toes)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유연하다(全 黃白色 柔軟)
십지두(十趾肚)	발끝(Tiptoe)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유연하다(全 黃白色 柔軟)
십지갑봉(十趾甲縫)	아래발톱허물(Hyponychium)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유연하다(全 黃白色 柔軟)

Fig. 3. Continued.

건의 초검 시장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한편 조선 시대에는 사망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 두 차례의 검시를 서로 다른 수령이 담당하여 실시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었다[6]. 초검이 끝나면 두 번째 검시인 복검(覆檢)을 인접지의 수령(대개 군수)이 착임하여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시신에 대한 보존 기법이 전무했던 그 당시 수준에서는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경우가 많아 복검 시기에는 주로 증언의 청취나 초검 내용의 확인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 언급한 이학조 사망사건에서도 초검 후 거의 한 달이 다 된 9월 20일에야 복검이 시행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복검이 시행된 시점이 초검 후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인지 시신의 대부분이 썩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몸의 몇몇 곳에서는 구더기가 나오고 있었다고 복검관은 정확히 기재하고 있다. Fig. 4는 이학조 사건 복검에 대한 시장기록을 정리한 것으로 김호[7]의 원 번역 내용도 함께 참고하였다.

### 검시 사실의 기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 시대 시장기록의 특징은 사망자 시신 각 부위의 이름을 명시하고 해당 부위에 대한 관찰 기록을 객관적으로 사실 관계만 정확히 기록했다는 점이다.

시장에 기술된 몸의 각 부위 명칭에서 기록자가 임의로 정한 것은 전혀 없으며 모두 무원록 시장식(屍帳式)편에 제시된 인체 부위의 명칭을 순서대로 적어 해당 사건의 관찰기록만 부기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 나오는 검시 부위의 확인 순서는 거의 모든 조선 시대 당시 사망사건 조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 기술된 인체 부위는 모두 해부학적으로 정확히 대응하는 지점이 있어 이를 분석하면 현대 해부학적 용어로 정확히 치환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진은 조선 시대 시장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여기에 기술된 인체 부위가 현대 해부학적으로 어떤 지점에 대응하는지 먼저 결정하였고[14], 그 연구 결과를 후속 작업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시장에 기록된 부위가 현대 해부학적 위치에 대응하는 내용을 이 종설의 Fig. 3과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험 결과는 눈으로 보이는 피부의 색과 촉진했을 때 단단한 정도를 적어 두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소견 없이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이를 생략하지 않고 꼼꼼히 항목마다 모두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Fig. 3과 4에서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부드럽다(全 黃白色 柔軟)」라고 기술한 내용은 해당 부분에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학조 검안 시장을 보면 왼쪽 눈동자에 피고름이 보인다는 것(兩眼雙睛: 左邊血濃),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血汗流出), 양쪽 종아리에 몽둥이로 맞은 흔적이 보인다는 것

시장에 기술된 부위	현대 해부학적 위치	검험 결과
정심(頂心)	머리마루점(Vertex)	머리카락이 탈락하고 뼈가 노출됨(頭髮脫落 骨殖現露)
편좌편우(偏左偏右)	마루부위(Parietal region)	머리카락이 탈락하고 뼈가 노출됨(頭髮脫落 骨殖現露)
신문(顙門)	정수리점(Bregma)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두로(頭顛)	이마뼈 (Medial part of frontal bone)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액각(額角)	이마뼈 (Lateral part of frontal bone)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태양혈(兩太陽穴)	관자놀이점(Pterion)	피부와 근육이 사라짐(皮肉消化)
양미(兩眉)	눈썹(Eyebrow)	피부와 근육이 사라짐(皮肉消化)
미총(眉叢)	눈썹할사이(Glabella)	피부와 근육이 사라짐(皮肉消化)
양안포(兩眼胞)	눈꺼풀(Eyelid)	썩어서 무너짐(腐爛)
양안쌍정(兩眼雙睛)	눈동자(Pupil)	썩어서 무너짐(腐爛)
양시협[兩頰頰]	광대부위(Zygomatic region)	피부와 근육이 사라짐(皮肉消化)
양이(兩耳)	귀(Ear)	피부와 근육이 사라짐(皮肉消化)
이륜(耳輪)	귓바퀴(Auricle)	피부와 근육이 사라짐(皮肉消化)
이수(耳垂)	귓볼(Lobule of auricle)	피부와 근육이 사라짐(皮肉消化)
이규(耳竅)	귓구멍(External acoustic pore)	피부와 근육이 사라짐(皮肉消化)
비량(鼻梁)	콧등(Nasal bridge)	썩어서 무너짐(腐爛)
비준(鼻准)	코끝(Nasal tip)	썩어서 무너짐(腐爛)
비규(鼻竅)	콧구멍(Naris)	썩어서 무너짐(腐爛)
인중(人中)	인중(Philtrum)	사라짐(消化)
상하순문(上下脣吻)	위, 아래 입술(Lips)	사라짐(消化)
상하아치(上下牙齒)	치아(Teeth)	온전함(全)
설(舌)	혀(Tongue)	사라짐(消化)
함해(頷頰)	턱밑(Submandibular)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인후(咽喉)	인후두(Pharyngolarynx)	사라짐(消化)
식기상(食氣頰)	인후두(Pharyngolarynx)	사라짐(消化)
양혈분골(兩血盆骨)	빗장뼈(Clavicle)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견갑(兩肩胛)	어깨뼈(Scapula)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액지(兩腋肌)	겨드랑이(Axilla)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흉박(兩脅膊)	위팔(Upper arm)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곡추(兩肱臑)	팔꿈치(Elbow)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수완(兩手腕)	손목(Wrist)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수심(兩手心)	손바닥(Palm)	피부와 근육이 사라짐(皮肉消化)
수지(手指)	손가락(Finger)	피부와 근육이 사라짐(皮肉消化)
수지두(手指肚)	손가락 끝(Fingertip)	피부와 근육이 사라짐(皮肉消化)
수지갑봉(手指胛縫)	아래손톱허물(Hyponychium)	피부와 근육이 사라짐(皮肉消化)
흉당(胸膛)	가슴(Chest)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유(兩乳)	젖(Breast)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심坎(心坎)	명치부위(Epigastric region)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두복(肚腹)	명치부위(Epigastrum)	사라짐. 구더기가 어지럽게 나옴(消化 蛆蟲亂出)
양늑(兩肋)	갈비뼈(Rib)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협(兩脇)	옆구리(Flank)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제두(臍肚)	배꼽부위(Umbilical region)	사라짐. 구더기가 어지럽게 나옴(消化 蛆蟲亂出)
양과(兩膀)	살굴부위(Inguinal region)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경물신낭(莖物腎囊)	남성 생식기(Male genitalia)	사라짐(消化)
양퇴(兩腿)	넓적다리(Thigh)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슬(兩膝)	무릎(Knee)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Fig. 4. The results of the second examination of Hakjo Lee case.

시장에 기술된 부위	현대 해부학적 위치	검험 결과
양견인(兩膝肋)	종아리(Leg)	왼쪽 종아리에 상처가 있음. 위아래가 자암색으로 만져보면 딱딱하며 둘레 길이가 일척 칠촌이다. 오른쪽 종아리에도 상처가 있음. 자암색으로 만져보면 딱딱하며 둘레가 일척 오촌이다 (左膝肋 有傷痕 上下紫黯堅硬 圓圍 長一尺七寸 右膝肋 有傷痕 一般紫黯堅硬 圓圍長一尺五寸)
양각완(兩脚腕)	발목(Ankle)	온전하며 피부가 말라붙어 있고 청흑색으로 사라지는 중임(全 皮肉乾貼 青黑色 向消)
양각면(兩脚面)	발등(Dorsum of foot)	온전하며 피부와 근육이 말라붙어 있고 청흑색으로 사라지는 중임(全 皮肉乾貼 青黑色 向消)
족지(足趾)	발가락(Toe)	온전하며 피부가 말라붙어 있고 청흑색으로 사라지는 중임(全 皮肉乾貼 青黑色 向消)
족지갑(足趾甲)	발톱(Toenail)	온전하고 청황색임(全 靑黃色)
뇌후(腦後)	뒤통수(Occiput)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발제(髮際)	두발선(Hairline)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이근(耳根)	조가비용기(Eminence of conchae)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항경(項頸)	목뒤(Posterior cervical region)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비박(兩臂膊)	어깨뒤(Posterior shoulder region)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흘주(兩脰肘)	팔꿈치(Cubitus)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수완(手腕)	손목(Wrist)	피부와 근육이 사라짐(皮肉消化)
양수배(兩手背)	손등(Dorsum of hand)	피부와 근육이 사라짐(皮肉消化)
수지(手指)	손가락(Fingers)	피부와 근육이 사라짐(皮肉消化)
수지갑(手指甲)	손톱(Nail)	빠져 버림(脫落)
척배(脊背)	척추뼈(Vertebra)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척려(脊贅)	척추옆근육(Paraspinal muscle)	상처가 한곳 있는데 둘레 길이는 삼촌 삼푼이며 자암색으로 약간 딱딱하다 (有傷痕一處 圓圍長三寸二分 色紫黯 微硬)
양후륵(兩後肋)	늑골뒤(Rib, posterior part)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후협(兩後脇)	옆구리 뒤 (Lumbar region, posterior part)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구더기가 어지럽게 나옴 (皮肉消化 蛆虱亂出)
요안(腰眼)	허리(Waist)	왼쪽 허리는 온전하며 황백색이며 유연한데 살갓이 사라져 감. 오른쪽 허리는 상처가 한곳 있는데 둘레길이는 칠촌 오푼이며 암적색으로 만져보면 딱딱하다 (左腰眼 全 黃白色 柔軟 向消 右腰眼 有傷痕一處 圓圍長七寸五分 色紫黯 堅硬)
양둔(兩臀)	볼기(Buttocks)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는 중임 (全 黃白色 皮肉向消)
곡도(穀道)	항문(Anus)	사라짐(消化)
양퇴(兩腿)	넓적다리(Thigh)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곡추(兩膕)	다리오금(Popliteal fossa)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퇴두(兩腿肚)	종아리(Leg)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각과(兩脚踝)	복사뼈(Medial and lateral malleoli)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노출됨(皮肉消化 骨殖現露)
양각근(兩脚跟)	발뒤꿈치(Heel)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는 중임 (全 黃白色 皮肉向消)
양각심(兩脚心)	발바닥(Plantar)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는 중임 (全 黃白色 皮肉向消)
족지(足趾)	발가락(Toes)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는 중임 (全 黃白色 皮肉向消)
족지두(足趾肚)	발끝(Tiptoe)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는 중임 (全 黃白色 皮肉向消)
족지갑봉(足趾甲縫)	아래발톱허물(Hyponychium)	온전하며 황백색으로 피부와 근육이 사라지는 중임 (全 黃白色 皮肉向消)

Fig. 4. Continued.

(左臙肋 有棒打痕), 척추뼈(脊背)와 척추옆근육(脊膂), 허리(腰眼) 등에서 상처가 보인다는 것 등의 기록도 있는데(Figs. 3 and 4) 바로 이러한 부분이 비정상적 소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특히 이학조 시신에서 발견되는 상처의 경우 그 모양과 크기까지 모두 계측하여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소견을 독자는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조선 시대 시장에서 보이는 이러한 탁월한 관찰 소견의 기술은 이 문서가 단순히 역사학의 범주를 넘어 생물인류학과 법의인류학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높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복검 기록을 보면 초검에서 확인되었던 상처 중 종아리와 척추옆근육(脊膂), 허리(腰眼) 등 부위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척추뼈(脊背)에서는 원래 보였던 상처의 흔적이 완전히 썩어 사라져 버린 것을 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시장에서는 원래 보였던 초검의 증거가 복검 때 사라진 보고는 드물지 않으므로 초검과 복검의 검시기록은 일견 비슷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대조하며 꼼꼼히 읽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학조 사망사건의 경우 조운태의 구타에 의해 그가 겨우 며칠 만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고발인에 의해 적시되어 있었고 이 사실을 피고 조운태도 순순히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7], 여기서는 사망원인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았다. 다만 시장에 기록된 초검과 복검 검시 결과를 사건 관련자의 증언 등과 함께 대조하면 사망원인에 대한 추정이 한층 정밀해져 법의인류학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심문에서는 조운태가 소나무 몽둥이나 죽창으로 이학조의 등과 허리, 양쪽 다리를 쳤다는 사실이 이미 증언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사실은 초검관이 검시로 확인한 구타로 인한 상처 부위와도 정확히 일치하여 사건발생의 경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툼 이견의 여지가 사라졌다. 이 부분은 역시 엄정하고도 중립적으로 관찰내용을 담담히 서술하게 되어 있는 조선 시대 시장 기술의 탁월함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검시 결과의 해석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된 조선 시대 검시기록은 관련자의 증언과 합쳐져 검험관이 사건에 대해 내리는 최종 판결의 기본 자료가 된다. 조선 시대에는 검시 후 사망원인을 결정할 때 검시관이 이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원록에 입각하여 사망원인을 논하며 자살과 타살의 가능성까지 분별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시장기록이나 발사에 나타난 검험관의 실인에 대한 판결을 보면 드

러내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무원록의 내용을 의식하거나 인용한 기술이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사에 기록된 검시관의 판결은 무원록 기술 중 어떤 부분에 근거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비로소 그렇게 쓴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술한 이학조 사건에서는 시신의 각 부위 색깔을 자암색(紫黯色), 황백색(黃白色), 청황색(靑黃色), 청흑색(靑黑色) 등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 한편 몽둥이로 맞아 죽은 경우에 대한 무원록 기술 중에는 구타사(毆打死; 증수무원록) 및 봉구사(棒毆死; 신주무원록) 기록에서 「타물이나 이마, 주먹이나 손, 발이나 다리 등 단단한 물건으로 치고 때린 경우 상처의 모양과 색이 매우 심한 경우는 자암색으로 약간 부어 오르고 그 다음 심한 경우는 자적색(紫赤色)으로 약간 부어 오르고, 또 그 다음은 자적색이며(부어오르지는 않고), 그 다음은 청적색(靑赤色)이다. 그리고 고한(辜限)을 넘은 상처는 그 색이 약간 푸르다(他物及頭額·拳手·脚足堅硬之物撞打, 痕損顏色色, 猶言形色也. 其至重者紫黯微腫, 次重者紫赤微腫, 又其次紫赤色, 又其次靑赤色, 又其次靑赤色. 其出限外痕損者洗冤錄傷損條, 限, 手足十日, 他物二十日, 其色微靑)」라 했기 때문에 검험관은 이를 분명히 의식하여 시장을 기술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구타당한 상처의 기술에서는 색이 변한 양상이 그 심한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므로 검험관이 시장에 이를 기술할 때 그 색을 잘 구분해 적어 놓았다. 이학조 사건에서는 자암색, 황백색, 청황색, 청흑색 등 다양한 피부색을 기술하였지만 무원록에 의하면 이 중 물건으로 맞은 상처는 자암색으로 바뀐 부위가 가장 심한 것이기 때문에 이학조 시신에서 이렇게 자암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 보면 증인 진술에서 조운태가 이학조를 소나무 몽둥이로 때렸다고 한 부위(등과 허리, 양쪽 다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원록에 기술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기술된 내용만이 아니다. 시장의 내용과 증인의 심문내용을 바탕으로 내린 검험관의 최종 결론 역시 무원록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그 미묘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전술한 이학조 사건을 보면 사건의 결론을 적은 발사에서 복검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7].

지금 이학조의 시체를 밝은 곳으로 꺼내 놓으니(중략) 앞쪽 면의 양쪽 종아리(兩臙肋)와 뒤쪽면의 척추옆근육(脊膂), 허리(腰眼) 등의 상처가 현저했습니다. (이는) 자암색을 띠고 또 단단한 상처로서 크기 또한 꽤 컸으니 이곳이 치명상을 입은 부위였습니다. 실인(實因; 사망의 주요원인)을 정하려고 하니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 해도 반드시 그 치명처(致命處)를 정해야 하므로 (이는 사망원인을 결정하는 데) 신중하

려는 뜻입니다. 법문(法文)에 의하면 속사지처(速死之處; 중요한 부위로 다치면 빨리 사망하게 된다)에 상처를 입으면 3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학조가 다친) 요안(腰眼; 허리)이 곧 속사지처입니다. 이학조의 상처를 보니 확실히 나무 몽둥이로 구타한 흔적이 분명했고 속사처를 구타당했는데 중상이라면 5일 이내에 죽지 않았습니까? 증거로 삼을 공초(증언과 진술)들과 시체의 상흔이 서로 부합하니 실인은 피타치사(被打致死)로 적고 정범은 조운태로 확정합니다[7].

복검관이 기술한 이 글에서 다치면 급하게 사망한다고 한 속사지처가 무엇인가 하면 이는 곧 증수무원록대전 검식조에 자세히 나오는데 해당 검식조에는 「頂心·顙門·耳根·咽喉·心坎·腰眼·小腹·腎囊, 此速死之處」라 하여 허리(腰眼) 부위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속사지처 중 하나로 열거한 다음, 이 부위에 「肉靑黑皮破, 肉綻骨裂, 腦出血流, 此致命之傷」 등 상처를 입으면 이것이 곧 치명상이 되며 속사지처에 치명상을 입게 되면 길어야 3일을 넘기지 못한다(致命之傷, 當速死之處, 不得過三日)라고 하였다. 이학조 사건의 경우 조운태에게 구타당한 후 4일 만에 결국 사망하였는데 상처를 입은 부위 중에 허리(腰眼) 부위가 포함되어 있고 이곳은 외물에 의해 타격받았을 때 나타난다는 색깔 중 가장 심각하다는 자암색의 상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의 하나로 확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학조 사망사건을 종결할 때 관련자의 증언과 진술, 시체 검시 결과가 모두 서로 일치함을 보이며 이 결과가무원록의 기록과 어긋남이 없어야 비로소 검험관이 이를 확정하였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조선 시대 당시 검안과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원록에 대해 법의인류학자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자료에서 무원록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이때 대개 法文에 의한다고 표시한다) 관련 기술에 대해 특별히 근거를 밝히지 않고 쓴 사건도 있으며 그런 경우에도 그 이론적 근거는 결국 무원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원인의 결정 등 사건 종결에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무원록 어딘가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도 좋다.

## 현대법의학이 보는 조선 시대 검시

무원록에 기술된 내용 중에는 현대 법의학의 측면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수준의 해석이 실려 있는 경우도 있다(Fig. 5). 무원록은 이처럼 경험과 합리성에 바탕하여 당시의 여러 사망사건 조사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잘못된 정보와 사례도 역시 많이 있으며 우리가 현대의학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도 보인다. 무원록에 기술된 많은 조문들은 현대법의학에 의해 타당성이 완전히 입증된 내용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무원록을 맹신하며 검시기록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우 그 오류 때문에 조선 시대 당시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을 것이다.

무원록과 이에 바탕한 조선 시대 시장기록에서 보이는 합리성과 경험주의는 현대 법의학자들에 의해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15], 그렇다고 해서 무원록에 기초하여 내려진 조선 시대의 검안 서류의 판결 내용이 모두 정확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무원록에는 적혈조(滴血條)에 두 사람의 피를 뽑아 한 그릇에 떨어뜨렸을 때 친아들이나 형제라면 피가 하나로 응결된다(親子兄弟, 或自幼分離, 欲識認, 難辨真偽, 畧各自出血, 滴一器之內, 眞則共凝爲一, 否則不凝也)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현대 의학의 입장에서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임은 물론이다.

이 밖에 무원록에서 처음 기술한 의도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더라도 세부적인 면까지 들어가 검토하게 되면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무원록 검식조(檢式條)에는 계절에 따라 시체가 부패하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四時變動) 판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매우 타당한 사실을 잘 서술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꼼꼼히 검토하면 그 내용이 현대법의학에서 확립한 사후경과시간의 추정 기준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 따라서 무원록에 기술된 설명을 너무 신뢰하지만 말고 현대 법의학에서 인정받는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조선 시대 시장기록 및 검험관의 판결 내용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할다 할 수 있다.

## 생물인류학에서 보는 조선 시대 검안시장 연구의 미래

조선 시대 검안 서류에는 둔기나 예기에 의한 외상, 추락사, 자살, 교살(絞殺), 압사(壓死), 익사(溺死), 기아사(饑餓死), 병사(病死), 화상사(火傷死), 낙뢰사(落雷死), 동사(凍死), 중독사(中毒死) 등 다른 역사 문헌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 당시 한국인의 다양한 사망원인에 대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시신에 가해진 손상 등이 매우 객관적인 필치로 묘사되어 있어 이 자체로도 중요한 생물인류학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질병과 외상을 얻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가 오래 축적되면 개인적 내력(personal history)이 확보되지 않은 고인골을 위주로 이루어

**無怨錄 卷下, 三十九, 死後仰臥停泊微赤黃色條**

무릇 죽은 사람의 목뒤, 등 위, 양갈비뼈 뒤쪽, 허리 안쪽, 양쪽볼기 위쪽, 양쪽 넓적다리, 양쪽 팔꿈, 양쪽 장딴지의 위아래에 열은 붉은색이 돌고 있는 것을 검험하게 되면 이는 죽은 본인이 사망한 후에 계속 누워 있었으므로 혈액이 아래로 흘러내려가 이렇게 열은 붉은색을 띠는 것인즉, 이는 다른 이유로 사망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凡死人項後·背上·兩肋後·腰眼內·兩臀上·兩腿後·兩曲腋·兩脚肚上 上下, 有微赤色, 驗是本人身死後, 一向仰臥停泊, 血脈墜下, 致有此微赤色, 卽不是別致他故身死)

사후에는 시체 하부에 혈액취하(hypostasis) 및 시반(postmortem lividity)이 생성된다.

**增修無怨錄大全, 檢式**

상처를 검험할 때는 모름지기 손가락을 사용해야 한다. 그 푸르고 붉은 곳을 만져보아 진짜 상처라면 굳고 단단하며 손가락을 때도 계속 청홍색으로 남아 있고 (중략) 만약 발면처(發變處: 상처가 아닌 시반)라면 손가락을 (눌렀다가) 떼면 즉시 하얗게 변한다.  
(驗傷, 須用手指, 按其青紅處, 眞傷處堅硬, 指一起, 仍然青紅, (중략) 如係發變處, 將指一點起, 卽時白色)。

사후 4~5 시간 내의 시반에 지압을 가하면 그 부위가 퇴색된다. 하지만 피하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눌러도 퇴색이 없다.

**新註無怨錄, 卷下, 三十 雷震死條**

(중략) 가슴과 목, 위팔 위에 전문(篆文)과 비슷한 흔적이 있는 경우가 있다.  
(胸項背膊上, 或有似篆文痕)

뇌문(lightning print)이란 낙뢰사했을 경우에 혈관의 마비로 형성되는 적갈색의 피부 무늬로서 수시간 후에는 소실된다.

**增修無怨錄大全, 刀傷死**

살아 있을 때와 죽은 뒤의 상처를 구분하는 법. 생전에 날카로운 칼날에 상처를 입으면 상처 어귀의 피부와 근육에 핏자국이 있고 내막이 풀려 있으며 살이 넓게 벌어지고 화문이 밖으로 나와 있으며 집어보면 선홍색의 피가 있는데 반해 죽은 다음에 칼질하여 잘라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마르고 희고 피가 없고 집어보아도 (피 대신) 맑은 물이 나온다.  
(辨生前死後傷痕, 生前利刀所傷, 痕口皮肉有血, 透膜, 肉闊, 花文敝出, 捻有鮮紅血, 死後刀刃割損, 乾白無血, 捻有清水)

법의학에서 생활반응이란 외부자극이 생존 중에 가하여졌다는 증거가 되는데 이에 출혈과 응혈, 피부, 근육, 연조직 등의 수축에 인한 창연의 외면, 염증성변화 등을 들 수 있다.

**新註無怨錄, 卷下, 刀傷死**

공격당하는 사람이 범인이 칼로 덤벼들어 오는 것을 보았을 때는 반드시 (서로) 다투는데 (이때) 손을 써서 (칼을) 막으려다 손 위에 반드시 손상을 입게 된다.  
(其被傷人見行兇人用刀, 物來傷之時, 必須爭競, 用手來遮截, 手上必有傷損)

방어손상이란 어떤 불의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본능적인 방어기전에 의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는 과정에서 받은 손상으로 예를 들어 예리한 칼로 찌르려 할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쥐면 수장부 및 수지내면에 절창이 생긴다.

**增修無怨錄大全, 卷下, 溺水死**

생전과 사후에 (물에) 빠진 것을 구별하는 법.  
(중략) 머리와 발제 부위, 손과 발톱 사이, 혹은 신발 안에 모래와 진흙이 있으며 입가와 코 안에 물방울 포말과 밝은 색의 피로 더러워지며 (몸에) 부딪혀 손상된 곳이 있다면 이는 생전에 물에 빠져 죽은 증거이다  
(頭鬢緊, 頭與髮際·手脚爪縫, 或脚鞋內, 各有沙泥, 口鼻內, 有水沫及些少淡色血汚, 或有磕擦損處, 是生前溺水之驗也)

표류시체의 경우 살아서 물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죽은 후 물에 던져졌는가를 구별해야 하는데 생전익사 시에는 반사적으로 주위의 물체를 잡아 사망 후에도 계속 쥐고 있으며, 비공과 구강에서 백색포말이 발견되며 흉부가 팽대한다. 시체가 수중에서 손괴된 흔적이 보이는 경우 이것도 익사의 소견 중 하나이다.

Fig. 5. Examples of the Muwonrok's content that is proven accurate by modern forensic science.

지는 고병리학 연구의 경우 연구 결과의 해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도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 시대 검안 서류를 연구한 보고는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충분치 않다. 이는 이

시대 검안에 대해 수행된 연구에서 인류학자가 관심을 가진 만한 자료인 시장과 검시관이 쓴 실인(實因; 가장 유력한 사망원인)에 대해 법의학적 분석이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조선 시대 시장에 기록된 내용을 법의

인류학적으로 완벽히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시장기록 원문을 정확히 읽어내는 인문학자의 역량뿐 아니라 시신을 검시한 기록을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의학자의 능력도 함께 요구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단독작업으로 진행하기보다 양측 모두 연구에 참여하여 적극적 의견 수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부검 경험이 많은 법의학자, 고인골과 미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생물인류학과 해부학자, 한문 고전 번역에 능통한 인문학자 등이 함께 연구진을 구성하여 인문학적으로나 법의학적으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를 조선 시대 검안 시장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연구의 방법을 요약하면, 대상이 되는 검안 서류에 대해 참여한 인원 중 인문학자가 먼저 서지사항을 파악하여 해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한글로 번역하며 그 결과물은 법의학 및 생물인류학자에게 전달되어 해당 내용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촉발한다. 검안 자료의 시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로부터 유도된 실인이 법의학적 시각에서 과연 타당한 결론인가 하는 부분까지 추적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현대의학의 측면에서 볼 때도 설득력 있는 사인까지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본 연구진은 다년간에 걸친 학제 간 공동 작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조선 시대 검안에 기록된 시장 및 사인규명 자료가 생물인류학 및 법의학 연구에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가 하는 점을 잘 알 수 있었다. 시장 자료에 기록된 검시의 내용은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정보로만 기록되었고 이렇게 확보된 자료에 의한 판결 역시 검험관이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무원록 등에 기록된 기법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게 되므로 이 기록물은 법의학자들이 볼 때 현대의 사망사건의 조서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까지 받게 된다. 객관적으로 기술된 당시 사건 조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조선 시대 사람들의 다양한 사망원인과 그 기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로부터 얻어진 학술적 정보는 고인골 및 미라 등 고고학 발굴 유체를 인류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REFERENCES

1. 김호. 규장각 소장 검안의 기초적 검토. *조선 시대사학보*. 1998;4:155-230.
2. Kim H. The Publication of Shinju-Muwonrok during the early 15<sup>th</sup> century and autopsy procedures at the time. *Korean J Leg Hist*. 2003;27:195-230.
3. Kim H. A Postmortem Examination, Document of 'Normal Exception'. *Kyujanggak*. 2015;34:312-25.
4. 송철의, 이현희, 장윤희, 황문환. *역주증수무원록언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5. Shin DH, Hong S, Kim CY, Hong SJ, Ki HC, Lee SD, et al. Prospect of Paleopathological Research on the Forensic Work Records of Joseon Dynasty Period in Korea. *Asian J Paleopathol*. 2023;5:8-20.
6. 유덕열. 조선 시대 검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7. 김호. 1897년 광양군 이학조 검안을 통해 본 동학농민운동의 이면. In: *검안과 근대 한국사회*.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pp. 245-316.
8. 김정옥. 19세기 말 昌善島 林召史 致死事件에 대한 檢案 분석의 사례. *역사와경계*. 2009;73:107-35.
9. Park S. Women and Society in the Late-Nineteenth-Century Inquest Record. *Korean Hist Manuscr Res*. 2017;50:1-26.
10. Sim J. Mountain Lawsuits in the Ending Days of Joseon, Examination through Geom'an (Autopsy Reports) Materials. *Korean Hist Manuscr Res*. 2017;50:27-50.
11. Chon K. Practices of Gambling in Late Chosun Appeared in the Ancient Documents and Examinations. *Korean Hist Manuscr Res*. 2017;50:51-74.
12. 조영준. 조선말기 살인사건 조서의 과학성 검토, 1895-1907 - 규장각 소장 檢案에 수록된 凶器 그림의 기초 분석 -. *규장각*. 2016; 48: 273-361.
13. Shin DH, Shin EK. A Life and Death of the Leprosy Patients in Joseon Society Considered from the Anthropological Perspective. *Anat Biol Anthropol*. 2019;32:53-9.
14. Yun YH, Shin DH, Hong SU, Hong SJ, Lee SD, Ki HC, et al. Anatomical Landmarks Used for Post-mortem Investigation Records Described in Jeungsu Muwonrok Eonhae of Joseon Dynasty Period. *Anat Biol Anthropol*. 2023;36:67-76.
15. 문국진. *고금무원록*. 서울: 고려의학; 1996.

**간추림** : 조선 시대의 검시(檢屍)는 동아시아의 전통 시신 조사기법을 이어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의 변사사건 조사와 판결 내용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가 현재도 규장각에 많이 남아 있다. 그중 사망자에 대한 검시기록인 시장(屍帳)에는 사법적 조사 중 확인된 물적 증거가 매우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장기록에는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상 등에 대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를 해독하는 인문학자와 검시기록의 의학적 측면을 규명할 수 있는 법의학자가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면 조선 시대 사망 사건에서 치사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이 종설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되어 밝혀진 조선 시대 검안 서류와 시장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며 이에 대한 연구는 생물인류학적 측면에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찾아보기 낱말** : 검시, 시장, 조선 시대, 생물인류학, 법의인류학, 법의학